조국통일

3대헌장

주체90(2001)년

PDF자료집



주간 ≪6.15주간≫

3대헌장

6.15주간 편집부

조국통일3대헌장(김일성주석님)
3 조국통일 3대원칙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7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노작(김정일장군님)
9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6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명제
19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히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관한 명제
20 **김정일**영수님께서 밝히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관한 명제

조국통일3대헌장 지지 서명
21 100여개 나라에서 1억 5, 655만여명
21 세계사회계가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
22 련방공화국창립방안 지지성명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23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옥돌제작기념대회

조선노동당과 통일전선
24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55년 - 통일전선실현을 위한 투쟁

범민족대회
25 **김정일**장군님과 범민련, 범민족대회

6.15공동선언
26 평양상봉
27 남북최고위급회담
28 남북공동선언 서명
28 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한돌
29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한민전중앙위)

2001년민족통일대축전
30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호소문
31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준공식 진행
32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
32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성공리에 폐막
33 2001 민족통일대축전 공동보도문
34 아쉬움을 남긴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
35 광복56돌 통일연대 기념식

대담
36 민족대단결의 활로를 여시어
37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수필
38 3대헌장은 통일의 기둥
39 통일의 근본열쇠 - 조국통일 3대헌장
40 통일전선탑과 함께 빛나는 이름들

시
41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42 6월 15일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리후락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부장을 대신한 박성철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리후락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념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부장과 리후락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리후락
1972년 7월 4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일성주석님 / 조선노동당 6차 대회

주체 79(1980)년 10월 10일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사이의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 있는 조국통일 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 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여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련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상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 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 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 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 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 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 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 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 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 안에서 전민족적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이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 나갈 것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삼천리 강토 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김일성주석님 / 주체82(1993)년 4월 6일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나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이익에 앞서 전민족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 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은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은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내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열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김정일장군님 / 주체61(1972)년 7월 14일

지난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국내외적으로 계속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커다란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남북공동성명을 열광적으로 지지환영하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열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들도 남북공동성명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이처럼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은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절절한 통일염원과 조선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요구를 옳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 30년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은 조국의 분열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나라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그 결과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고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한 역사적 사변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세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하여 온 나라가 통일의 열망으로 들끓고 민족적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은 요즘 남조선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동의하고 그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었지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자마자 종이장 한 장에다 운명을 내맡길 수 없다느니,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길면 길수록 좋다느니 하면서 공동성명에 배치되는 발언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지 않고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결코 우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있은 남북연락대표접촉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의 온당치 못한 언행에 대하여 추궁하자 남측대표는 반성한다느니, 남조선내부가 복잡하여 그러는데 양해하여 달라느니 하면서 변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열주의자들의 입에 발린 소리를 곧이듣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잔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의 언행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는 조국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나아가서 남북공동성명자체를 뒤집어엎으려는 속심을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놓고 돌아앉아서 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내용에 배치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그에 옳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대화를 한사코 반대하면서 ≪승공통일≫을 부르짖어왔습니다. 그러던자들이 이번에 우리의 남북협상제의에 응해 나서고 조국통일3대원칙에 동의한 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들이 ≪승공통일≫야망을 버렸거나 조국의 자주적 평화운동을 바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에 동의하고 남북공동성명에 수표한 것은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얻자는데 기본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역량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자기들보다 우세한 조건에서 지금 당장 힘으로 대결해서는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연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와 협상을 벌여놓고 시간을 끌면서 긴장상태를 일시 완화시킨 다음 미제와 일제의 도움을 받아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을 배양해보려는 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조국통일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조성하여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고 저들의 반동적 통치체계를 더욱 강화해보려는 음흉한 목적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속에 딴 생각을 품고 양면전술을 쓰고 있은 조건에서 남북공동성명을 리행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들과의 어려운 투쟁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남북공동성명에서 확인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 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입니다. 북과 남이 조국통일3대원칙에 합의하고 그 리행을 온 민족과 세계 인민들 앞에 서약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는 남북대화를 옳은 방향에서 이끌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 원칙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넓혀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렵고 복잡한 정황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본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그 의의를 약화시키려는 온갖 현상과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어떤 입장에

서 대하는가 하는 것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하며 그들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왜곡하거나 거기에서 리탈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외세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세력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그 어떤 외국군대도 없습니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자는데 대하여 동의한 것만큼 우리는 미군철거문제를 강하게 들고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조선위정자들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 있기 때문에 남조선에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구실도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미국과 체결한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라고 들이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해나서도록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촉구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원칙에 동의하고서도 유엔은 외세로 생각하지 않는다느니, ≪한국≫에 있는 ≪유엔군≫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외세가 아니라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웨치고 있습니다.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대매국노적인 외세의존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할데 대한 기본원칙을 줴버리고 앞으로도 계속 외세에 매달리려는 속심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것으로밖에 달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위정자들이 들고나오는 궤변의 부당성과 매국배족적 본질을 낱낱이 폭로 하여야 하며 그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왜곡하는데 대하여 엄격히 추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이 터질수 있는 근원을 없애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입니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곧 동족상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며 세계인민들의 염원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데 대하여 주장하였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반동세력의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3년동안에 걸친 전쟁의 참화를 겪었으며 전후시기에도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어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려면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맞게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킨 기초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쌍방이 정세를 첨예화시킬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는데 대하여 선언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은 빈말로 되고말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에 동의하였지만 그들에게 진심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의사가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힘으로 뒤받침해야 한다고 하면서 ≪총력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떠들고 있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할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산악지대 비상훈련≫이요, ≪유격훈련≫이요, ≪도하작전훈련≫이요 하면서 여러 가지 군사연습을 련이어 벌여놓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소동은 우리를 자극하고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반공≫의 간판밑에 감행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중지하며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할데 대한 요구도 들이대야 합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인민들에게 민주주의 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며 남조선의 자본주의제도를 바꾸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남조선의 파쑈통치배들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지난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적 인민들을 수많이 체포, 투옥하였으며 야당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남조선파쑈도당이 지난해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열린 것을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거기에 겁을 먹고 통일기운을 말살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남침위협≫이라는 것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번 천명하였고 더욱이 이번에 남북공동성명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약속한 것만큼 남조선당국자들은 마땅히 ≪남침위협≫을 구실로 하여 선포한 ≪비상사태≫를 철폐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관계없이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 한데 뭉치자는 것이므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파쑈악법들도 마땅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리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 요구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충실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구들을 반대하거나 거부할 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민족적 단합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며칠전에는 살인재판을 벌여놓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자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입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위정자들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의사가 없으며 ≪승공통일≫의 야망을 의연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줍니다. 그들이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이러한 검은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매달리고 있은 양면전술의 목적과 속심이 뻔하지만 우리는 인내성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어기는 현상에 대하여 강한 타격을 주는 한편 열려있는 협상의 대문을 더 크게 열고 모처럼 마련된 남북협상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은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진척시켜 그것이 나라의 분열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북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협상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전까지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의 정치협상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이른바 ≪단계론≫을 주장하면서 우선 서신거래와 같은 인도적 교류를 실현하고 그 다음 경제, 문화 교류를 하며 그 다음 단계에서 남북정치협상을 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그들이 내세운 ≪단계론≫은 깨여졌으며 정치협상이 인도적 교류나 경제, 문화 교류보다 먼저 시작되였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합의한대로 남북조절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하여 풀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에서는 언제나 민족공동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뒤로 미루는 원칙에서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정치협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남조선집권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점차적으로 남조선의 야당들과도 접촉하여 남북정치협상이 다무적인 협상으로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북정치협상을 다무적인 협상으로 발전시켜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남조선위정자들이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을 제멋대로 어기거나 우롱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북경제교류와 체육, 문화 교류도 광범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여 북과 남사이에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내왕하며 접촉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남북사이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긴밀히 접촉하고 광범히 협상하여야 오래동안 격페되어 있은데로부터 생긴 불신과 오해를 풀고 이해를 넓혀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접촉하고 내왕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북과 남의 현실을 더 잘 알게 되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보다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애국과 매국, 민족자주정신과 외세의존사상간의 심각한 투쟁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하여 합의해놓고도 ≪대화있는 대결≫을 떠들고 있은 조건에서 우리는 그들의 어떠한 도발과 대결정책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합니다. 경험은 민족의 통일열망이 고조되고 북과 남사이에 긴장완화의 징조가 보일 때마다 대결소동을 벌이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이 적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모든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이제는 조국통일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긴장성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남북합작이 이루어지고 남북사이에 인사내왕과 경제, 문화 교류가 실현되면 많은 남조선사람들이 북반부에 들어오고 북반부사람들이 남조선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적들이 이런 기회에 공화국북반부에 부르죠아사상을 퍼뜨리고 자본주의제도를 세워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지금 공화국북반부의 전체인민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어 있다고 하여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사상이 침습할 수 없고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요소가 되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긴장성을 늦추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소홀히 할 때에는 부르죠아사상이 침습할 수 있고 자본주의적요소가 되살아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는 자본주의제도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우월하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으며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에 참가한 남측대표들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자만도취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우월하지만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자면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 잘하여 우리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여 누가 와보아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려면 세계 광범한 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에 대하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합의내용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있은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말로는 남북공동성명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남북대화가 추진되고 조국통일기운이 높아지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제는 국제적으로 처하여있는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른바 ≪닉슨주의≫를 내놓고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끼리 싸우게 하고 조선에서는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는 전술을 쓰고 있으며 남조선위정자들에게 남북협상을 하되 현재의 분열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취하고 있은 태도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남북사이에 평화통일에 대한 회담이 진행된다고 해도 미국은 남조선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느니,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은 미군을 축감할 계획이 없다느니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인민들에게 우리 당의 자주적 평화통일노선을 널리 선전하며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려는 미제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폭로 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벌여온 기만적인 ≪남침≫소동과 우리에 대한 악선전으로 하여 세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당의 자주적 평화통일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려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을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은 것이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의 간판을 들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은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외선전과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공동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들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철수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에 대해서도 주목을 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가 영원히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남조선에 다시 기여들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쫓겨나가게 되면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남조선에 다시 기여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야만적인 침략행위와 오늘 그들이 품고 있은 재침야망을 낱낱이 폭로 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세계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남조선에 다시 기여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당과 전체 인민 앞에 나서고 있은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우리 당의 자주적 평화통일노선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켜 전체 인민이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장군님 / 주체86(1997)년 8월 4일

우리 인민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 주신 역사적인 조국해방 52돌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그날로부터 반세기를 이어오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치신 불면불휴의 노고와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고 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염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열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도 가슴아파 하시었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생의 마지막 시각까지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 의무이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었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 놓으시었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양단됨으로서 생겨난 문제이다.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지난 반세기의 역사는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의 상반되는 두 노선의 첨예한 투쟁의 역사이며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역량의 승리의 역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노선, 통일노선을 견지하셨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노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노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노선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수천년 동안 한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져서는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면할 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통일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통일노선은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 일치한 염원과 지향을 반영한 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적 책동이 계속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시종일관 통일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를 조국통일의 보루로 굳건히 다지시는 한편 북반부 인민들이 한시도 남녘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었으며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도전과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키시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 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이게 하신 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냐 두 개의 조선이냐≫하는 두 노선 사이에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에 분열주의자들의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신 분도 우리 수령님이시며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남 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서들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국면을 열어 놓으신 분도 우리수령님이시었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 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 날이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수령님께서 벌이신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노선의 정당성이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의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지지와 연대성이 강화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 노선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노고를 다 바쳐 오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조국통일운동은 분열주의세력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면서 계속 발전하였으며 불패의 역량으로 확대강화되었다.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에 떨쳐나서고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운동이 오늘과 같이 위력한 전 민족적 운동으로 확대 강화되고 세계적인 관심과 진보적 인민들의 지지 성원 속에 전진하고 있는 것은 분열노선에 대한 통일노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시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

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조국통일의 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다. 3대헌장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랫동안 존재하여 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숭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 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주체적 통일역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 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었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에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단합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각계각층의 조선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이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 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역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 데에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서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진 환경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대표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탄생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이다.

오늘 통일애국의 주체적 역량은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적 범위로 확대강화되고 더욱 굳게 결속되고 있으며 사대매국적인 분열주의세력을 압도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노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반세기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국토양단과 민족의 분열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온 민족에게 치유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면 자라나는 새세대들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게 될 것이며 북과 남 사이에 민족적 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 수 있다. 제국주의식민지체제가 무너지고 압박받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독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때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뜻이었고 민족의 사활적 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의 민족적 과업이다. 만난을 무릅쓰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어야 한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함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어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받들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는 것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부강발전을 보장하며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영도하시는 전 기간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심으로써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고 조국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었으며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힘과 재능, 불굴의 기상을 온 세계에 높이 떨치게 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노선과 조국통일헌장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에 대한 원칙적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는 여기에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근본방도가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기본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지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하여 나갈 권리가 있다.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 자체의 힘으로 일으켜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 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 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 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 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먹히게 된 것도 초기 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하고 민족주의운동이 좌절된 것도 결국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숭배하고 섬기는 사대주의 때문이었다.

조국이 해방된 뒤에도 숭미사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역대 집권자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침략정책을 추종하여 반통일적인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찾는 조국통일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여 자기의 침략적,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조국통일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 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내부에 계급적 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 위업이다. 민족을 떠난 계급이나 계층이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않고는 민족 성원들의 자주성도 보장될 수 없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오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민족 공동의 이익보다 앞세워서는 안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 공통성보다 더 클 수 없다. 북과 남이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 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

조국애와 민족애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 감정이며 민족적 단결의 근원적 기초이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 특질이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 자기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다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하다.

우리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관용으로 대하며 그와 단결할 것이다.

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은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정치이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부강발전을 위한 투쟁의 전 과정에서 변함없이 광폭정치를 관철하여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다.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민족대단결노선은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과 새사회건설을 위한 투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오랜 실천과정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우리는 애국을 지향하여 통일위업에 나서는 모든 정당 단체,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과 연합해 나감으로서 민족 앞에 지닌 의무와 신의를 지킬 것이다.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며 우리 당의 변함없는 노선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놓고 동족끼리 서로 싸워야 할 근거가 없다. 북과 남 사이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도 무력행사의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사상과 제도는 강요한다고 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강압적 방법으로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없앨 수 없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입는 것은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요구일 뿐 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 통치배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 우리공화국과 미국은 아직도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협은 가셔지지 않고 있다.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세상에 공포된 북남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금 미국은 말로는 냉전의 종식과 긴장완화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구태의연하게 힘의 정책에 매달려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침략책동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남조선 통치배들의 전쟁도발소동을 적극 부추기고 있다. 군사적 위협이나 압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시도이며 위험한 행동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킬 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침해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통치배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는 것은 우리의 응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제국주의의 호전계층들은 무력으로 우리의 군사적 위력을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우리 인민을 놀래우거나 굴복시켜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분별없는 행동은 파국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시종일관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연방제 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루속히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을 바라고 있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가 세워진지도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

립하는 것이다.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어느 한쪽의 우위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연방제통일방식은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감돌고 있는 전쟁위험을 없애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민족은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합을 이룩하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 될 것이다. 통일된 연방국가는 주변나라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들의 위협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3

북과 남 사이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오늘 조국통일의 기운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으나 북과 남 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첨예하다. 민족의 운명도 나라의 통일도 안중에 없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저들의 권력기반이 밑뿌리채 뒤흔들리게 되자 출로를 북남 사이의 긴장격화와 대결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북남관계를 극한적인 적대관계로 전변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현정권이 출현한 이후 북과 남 사이에는 화해가 아니라 대결이 격화되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짙어 가고 있다. 북남관계를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남조선의 현 당국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못할 반통일적 매국배족적 죄행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 당국자들이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동족과 힘을 합쳐 외세를 반대배격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것은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누구도 민족을 등지고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면 민족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자주의 입장, 애국애족의 입장에 설 때에만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정책전환을 하여 민족을 위하고 민족에 의거하는 민족자주의 입장에 돌아서야 하며 동족과 손을 잡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북과 남 사이에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북남 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어야 군사적 대결상태도 가셔질 수 있고 나아가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이 실현될 수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참된 동족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어야 하며 북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 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와 함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져오며 서로 신뢰하고 화해할 수 없게 할뿐 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적 참화를 빚어내게 할 수 있다.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북남관계의 개선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실지로 존재하는 것은 남침위협이 아니라 북침위협이다. 조선반도에서 북침위험이 없으면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도 해소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무력증강과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며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 없으며 남조선의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조국통일 논의와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더욱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인사들 사이에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남조선의 통일애국역량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언제라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없으며 북남사이의 접촉도 교류도 이루어질 수 없다.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진전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탄압당하고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화의 과제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온 민족에게 해를 주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의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조국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온 민족의 기대에 맞게 오늘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지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지켜 볼 것이다.

조선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유관국가들도 조선의 통일을 돕는 성실한 입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유관국가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의지를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조선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자기가 서명한 공약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더이상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하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냉전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힘의 입장에서 조선문제를 대하지 않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조미관계도 두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좋게 발전할 것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은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조선의 분열을 부추기고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라에 인방인 일본을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며 비정상적인 조일관계도 개선되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조선이 통일되면 우리 조국은 7천만의 인구를 가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등장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존엄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자랑 떨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임으로서 7천만 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역사의 그날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장군님 / 주체87(1998)년 4월 18일

우리는 얼마 전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발표 5돐을 뜻깊게 기념한데 이어 이제 곧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5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민족적 회합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하시여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 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이게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통일애국역량이 이룩한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4월남북연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시고 지도하신 남북연석회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단결을 과시한 애국적 회합으로 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며 연석회의 50돐을 맞는 오늘 그 경험과 업적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민족적 단결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지향과 열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새롭게 밝히시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조국의 광복과 새 조국 건설,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역사적 로정에 훌륭히 구현하시여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처음으로 민족발전의 합법칙성과 민족적 단결의 기초를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입니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것만큼 민족성원들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뗄수없이 결합되어 있으며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기본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족의 어느 계급, 계층도 자기 운명을 바로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성을 가지며 계급,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성과 민족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을 광범히 묶어세우는 민족적 단결의 기초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으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입니다.

민족의 단결문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리 나라 역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당파싸움과 사대매국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망국의 비운을 겪었으며 그후에도 파벌과 사대주의로 인하여 민족주의운동도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실패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고수하고 높이 발양시키며 민족수난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압박받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인민들이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지향해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을 반영하여 민족문제와 함께 민족의 단결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세계인민들에게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올바른 지침과 투쟁의 기치를 마련하여준 위대한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민족문제와 민족의 단결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의 민족이론과 전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신 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이론적 업적의 하나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에 기여하신 특출한 공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었을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양심적인 종교인과 자본가들까지 광범한 애국역량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으며 이 조직은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밑에 반일애국역량을 총동원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민족적 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온 민족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었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는 국토양단과 민족의 분열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시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었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 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입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이념적 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적 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하여 온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팎의 정세로 보나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과 시대의 추세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 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입니다.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더해지고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면 민족적 참화를 빚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부세력들은 북과 남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의 간판밑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저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복잡하고 험악한 정세에서 우리 나라가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치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다시 외세의 농락물로 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굴러떨어질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외면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하면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은 분열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고 하루속히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습니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이익과 공통된 민족적 심리와 감정으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 수 없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 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 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가장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지만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렸으며 마침내는 일제를 격멸시키고 잃었던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일제가 패망한후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영영 갈라놓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여왔지만 남조선인민들속에 민족의 넋은 의연히 살아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외세의 지배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끊임없이 용감하게 투쟁하는 것은 압제와 치욕에 항거하는 남녘형제들의 민족적 의분의 발현이며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의한 기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온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있습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이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전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통일조국의 자주적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애국애족과 매국배족, 통일노선과 분열노선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자주요, 북과 남의 화해요, 단합이요 하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국애족과 매국배족이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민족적 단결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결이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 민족의 단결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 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 역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사상감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 기질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적 기초로 됩니다. 더욱이 민족분열의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을대로 다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 요구로 나서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치는 민족공동의 투쟁의 기치, 전민족대단결의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대업을 위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반세기이상이나 갈라져 살아온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공통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 과업은 조국통일이며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고 개별적 계급, 계층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



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 것없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펴나가는 광폭정치는 만사람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는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이며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광폭정치를 실시하여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이든 그와 단결하며 조국통일의 한대오에서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 한때 길을 잘 못 들었던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 뿐 아니라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힘을 합쳐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반북대결정책으로 북과 남의 화합을 가로막고 각방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저해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의 반북대결정책은 북과 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적 단결의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과 남사이에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면 대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의 역대통치자들의 비참한 말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선행통치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들의 말로에서 교훈을 찾고 반북대결의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정책전환을 하여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법률과 기구를 철폐하고 온갖 정치적 장벽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남조선의 역대 통치자들을 반대한 것은 그들이 집권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한 것은 남조선 역대통치자들의 외세의존정책과 반통일정책, 매국배족행위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입장, 연북단합의 입장에 선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분열하여 통치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미국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을 동족과의 대결에로 부추기며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외세의 부추김과 조종 밑에 역대 남조선통치배들은 분단의 장벽을 쌓고 북과 남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켰으며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을 분열, 와해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의 단합과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이와함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위하여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은 분열주의자들의 교활한 이간, 와해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그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나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층인사들과 인민들은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지상의 요구로 내세우고 단결을 강화하며 통일애국의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사이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을 널리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연대연합을 강화해나가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동포들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이념을 안고 내왕과 접촉, 대화와 조직적인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나라의 분열을 고정화하는데 대화의 마당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대화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모든 것을 조국통일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북남대화는 소수 당국자들과 특정한 계급, 계층의 독점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폭넓은 대화로, 전민족적인 대화로 되어야 합니다. 대화에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광범히 참가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쌍무적, 다무적인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연대연합하여 공동행동을 벌이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오늘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조국도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반드시 대단결을 이룩할 것입니다. 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우리 대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히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관한 명제

인터넷 구국전선 주체 89년 11월 11일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단결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입니다. …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다 단결하여 한 대오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설사 한때는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그와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과 단결하려고 합니다.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의 자본가들과도 단결하려고 합니다. ≫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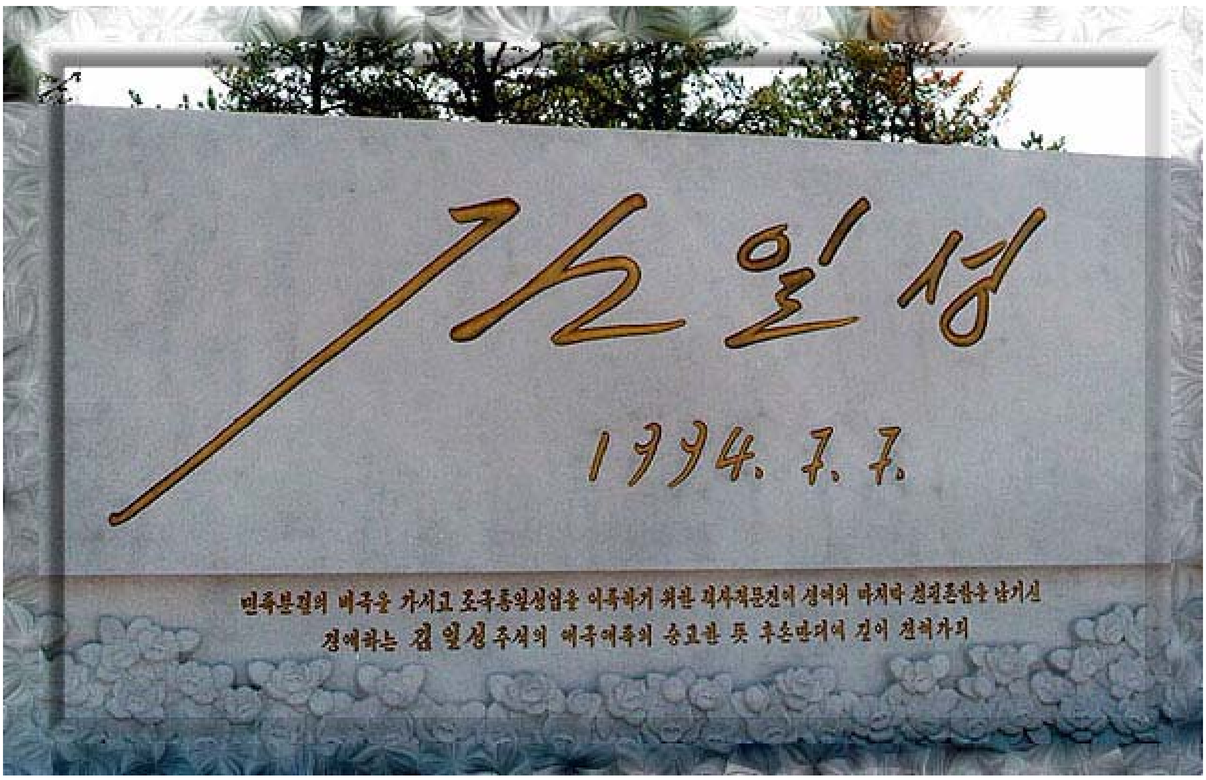
≪북과 남이 화해하고 통일하자면 어차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 배척하고 이단시하는 것은 민족을 사분오열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없이 그리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할 것 없이 모두다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민족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은 누구나 다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은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통일된 조국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김정일영수님께서 밝히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관한 명제

인터넷 구국전선 주체 89년 11월 21일자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조국통일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내부의 계급적 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 위업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 공통성보다 더 클 수 없다. 북과 남이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 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

≪조국애와 민족애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민족적 단결의 사상적 기초이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 특질이다.≫

≪우리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주장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지지 국제적서명운동

(100여개 나라에서 1억 5,655만여명)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진행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국의 발기와 호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운동에 지금까지 100여개 나라에서 500여개의 정당, 단체, 친선 및 련대성조직, 지역 및 국제기구들 그리고 정계, 경제계, 학계, 출판보도계와 군부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서명자대렬은 달과 달을 이어 끊임없이 늘어나 아시아의 15개 나라에서 8,000여만명, 아프리카의 35개 나라에서 5,500여만명, 아메리카의 30여개 나라에서 800여만명, 유럽의 20개 나라에서 900여만명, 오세안주에서 20여만명, 국제기구들에서 수백만명이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서명운동참가자수는 총 1억 5,655만여명에 이르게 되였다.

세계사회계가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

(평양 1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세계 사회계가 조국통일3대헌장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 나서고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 시작되여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1억 수천만명이 여기에 서명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국은 불레찐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대강이라고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는 성명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반도의 구체적현실과 조국통일에 대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고 있는 독창적이고 정당하며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북유럽협조위원회는 호소문에서 조국통일3대헌장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련방공화국창립방안 지지성명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여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정당한 조국통일방안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고 하였다.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돐에 즈음하여 마다가스까르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총서기 라마해리쑨 알퐁스가 1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10월 10일은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지 20돐이 되는 날이라고 하였다.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이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마다가스까르투쟁련합당 총비서 란드리암바우 마후바자까쑤아 막쓰할바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돐기념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침해하지 않고 북과 남의 리해관계, 모든계급, 계층의 리익을 공정하게 반영한것으로서 여기에는 7천만 조선민족의 지향과 념원이 담겨 져 있다.

가이아나아메리인디안행동운동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여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확신한다.

(평양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지지월간에 즈음하여 에짚트조선친선협회가 10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 **김일성**주석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것은 조선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선인민의 리익에맞게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 온 력사적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북과 남에 반세기가 넘는 기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도 그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돐에 즈음하여 도미니까 싼또도밍고자치종합대학에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와 영화감상회, 친선모임이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도미니까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반 로드리게스, 도미니까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오뽈도 그룰욘, 조선통일지지 도미니까위원회 위원장 페르난도 싼체스 마르띠네스, 대학총장 로베르또 레이나 등 정계, 사회계, 학계, 출판보도계 인사들과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평양 1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지지월간에 즈음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10월 31일 도미니까의 싼또 도밍고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도미니까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반 로드리게스, 조선통일지지 도미니까위원회 위원장 페르난도 싼체스 마르띠네스를 비롯하여 도미니까의 인민운동, 근로자당(록색), 혁명당 등 여러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옥돌제작기념대회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범민련 남측본부가 3월 22일 서울의 한양대학교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전국련합)과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량심수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각 단체 성원들과 비전향장기수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립을 위한 남측 옥돌제작기념대회를 가지였다.

대회에서는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대행 리종린이 기념사를 하였다.

그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립사업이 북과 남, 해외 동포들과 세계평화애호단체들의 커다란 관심과 호응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탑건립사업을 힘차게 벌려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그는 로동자, 농민, 청년, 어민, 빈민, 학생들과 각계 통일애국단체와 인사들 모두가 통일을 위해 뭉치고 또 뭉쳐 기어이 2000년을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여는 력사적인 해로 장식하자고 말하였다.

이어 련대사를 한 ≪전국련합≫ 공동의장 리천재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하나임을 보여 주는 위대한 선언적, 력사적 의미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탑건립에 적극 나설것을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탑건립정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참가자들의 명의로 된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건립현장에 보내는 지지편지가 랑독되였다.

편지는 남녘의 각계민중과 통일애국인사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뜻깊은 새 장을 열고 7천만 겨레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과시할 만년대계의 탑이 훌륭히 건립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면서 탑건립사업은 전민족의 통일애국운동을 고무추동하는 커다란 힘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편지는 탑건립을 위한 지지, 지원사업에 모든 힘과 슬기를 바칠것이라고 하면서 건립현장에 보낼 옥돌제작사업 등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설것이라고 지적하고 탑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상징으로 빛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편지랑독에 이어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지하며 관철할것을 결의하는 서명운동이 있었다.

통일전선실현을 위한 투쟁

조선로동당이 걸어온55년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은 창건후 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갔다.

일제강점으로부터 나라가 광복된후 조선에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반혁명세력은 이 중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당기려고 책동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이 시기 통일전선운동을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개적인 련합전선의 형태로 진행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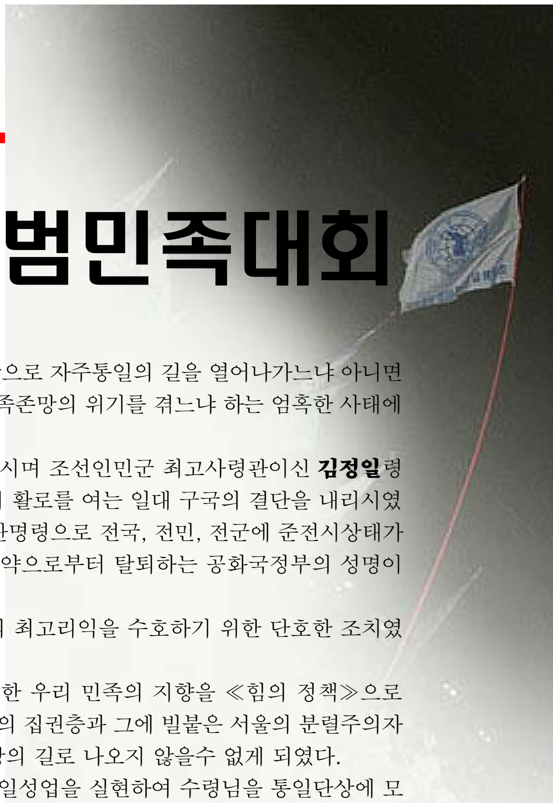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여러 정당들이 자기의 성격에 맞게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민주주의길로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석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민주주의 림시정부수립,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사회의 민주주의개혁사업에 여러 정당들을 공동으로 참가시켜 그 과정을 통해 협력과 단합을 실현하였다. 또한 통일전선사업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한 반동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철저히 고립청산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은 주체35(1946)년 7월 4개의 정당과 13개의 사회단체대표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상설적인 조직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1949년 6월에는 미제와 친미괴뢰들이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책동에 대처하여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민주력량을 망라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친미괴뢰도당의 직계정당을 제외한 북과 남, 해외의 70여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되였다. 통일전선실현에서 조선로동당은 자기 활동과 사업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주도적역할을 수행하는것과 함께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통일전선을 실현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조선로동당이 통일전선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들은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





김정일장군님과 범민련, 범민족대회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체의 통일대강에 기초하여 밝히신 90년대 통일시간표는 7천만 온 겨레에게 크나큰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90년대를 통일의 연대로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지향은 참으로 강렬하고 숭엄한 것이였다.

그분께서는 이무렵 남과 북, 해외의 통일력량을 망라하는 첫 련합체를 내올 때에도 ≪조국통일범민족련합≫으로 이름을 다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였으며 평양시 락랑구역일대에 웅근 하나의 도시에 맞먹는 규모의 새로운 현대적주택거리를 건설할 때에도 그 이름을 ≪통일거리≫로 부르도록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하얀 눈이 덮여있던 그날 락랑거리를 ≪통일거리≫로 명명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전파를 타고 울려퍼졌을 때 겨레의 가슴가슴은 또다시 90년대통일의 열기로 뜨거워졌다.

그분께서는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90년을 계기로 력사적인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협의모임이 있었던 유서깊은 대동강 쑥섬에 사적지를 꾸려≪통일전선탑≫을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조국통일상≫을 제정하도록 하시는 등 남과 북, 해외에 있는 온 겨레의 90년대 통일열기를 높이는 조치를 련이어 취하시였다.

통일의 구상이신 **김정일**령도자의 정력적인 노력은 빛나는 열매를 맺었다. 1990년 8월 15일, 분단 45년만에 남과 북, 해외의 광범한 인사들이 참가한 력사적인 범민족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에서는 90년대에 통일성업을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전민족적인 통일애국세력의 련합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을 결성하였다. ≪범민련≫의 결성에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도 결성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전민족적통일열기가 높아가는 정세에서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성사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하여 1990년 9월부터 민족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그분께서는 이 회담에서 남북의 군사적대결상태의 해소, 통일지향적인 평화의 보장, 외국군대의 철수와 남북군축실현문제를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하도록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고위급회담이 민족적화해를 도모하고 불가침을 약정하며 협력과 교류의 길을 열어놓을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을 거듭 밝혀주시고 회담이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시였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뒤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숭고한 민족애와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할수 있다.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온 겨레에게 90년대 통일실현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민족의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90년대 통일의 아침은 밝아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민족적인 통일열기는 미국지배층과 그 추종세력의 분렬주의적책동에 의해 랭각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1993년초에 들어와 미제와 이남집권세력은 있지도 않는 ≪북의 핵의혹≫설을 내돌리면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의 재개를 선포하고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유린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남북대화가 전면 동결되고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은 차단되였다.

정세는 전민족의 단합으로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온 겨레가 핵에 의한 민족존망의 위기를 겪느냐 하는 엄혹한 사태에 이르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때 민족의 활로를 여는 일대 구국의 결단을 내리시였다. 이해 3월 최고사령관명령으로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핵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공화국정부의 성명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였다.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지향을 ≪힘의 정책≫으로 가로막아보려던 워싱턴의 집권층과 그에 빌붙은 서울의 분렬주의자들은 이북당국과의 협상의 길로 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대에 통일성업을 실현하여 수령님을 통일단상에 모시는 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최대의 소원이셨다. 그런데 온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민족의 대사를 마련하시다가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김일성**대원수께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시였다. 백두산천지로부터 한나산 백록담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온 겨레의 크나큰 비애와 상실의 아픔은 구천에 사무쳤다.

주체위업의 계승자이시며 민족의 구성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통한 심정을 한가슴에 묻으시고 온 겨레에게 상실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그처럼 온갖 로고와 심려를 기울이신 통일대업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 일어설 것을 절절하게 호소하시였다.

어떤 난관이 가로놓이고 시련의 고비가 있어도 90년대를 통일의 년대로 빛내이시려는 것이 그분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인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이신 **김정일**령도자의 이 숭고한 의지와 신념, 그분의 비범한 령도에서 통일조국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온 겨레의 설움이 그칠줄 모르고 있을 때인 1994년 7월말에 력사적인 제5차 범민족대회개최를 제안하시였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차 범민족대회 ≪민족대단결의 해≫, 1994년의 8.15를 계기로 서울과 평양, 도꾜에서 열리였다. 대회는 당면정세와 통일운동의 과제를 진진하게 토의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차 범민족대회(평양, 서울, 도꾜)공동결의문≫과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세계의 평화애호력량에게 보내는 호소문 그리고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조국통일대토론회≫, ≪90년대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연단≫, ≪통일문화의 밤≫등 통일축제행사들도 성과리에 진행되였다. 이남에서는 통일부정적ㅇ니 김영삼≪문민정권≫의 총칼의 봉쇄를 박차고 1만 7천여명의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민중이 제5차 범민족대회(서울)를 치르었다.

범민련 해외본부가 주최한 제5차 범민족대회(도꾜)도 성공리에 진행되였다.

력사적인 제5차 범민족대회는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 민중이 **김정일**령도자를 민족의 운명, 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러 90년대통일을 기필코 실현하려는 7천만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보여주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이 영접하시였다



(평양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3일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여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대통령을 따뜻이 영접하시였다.

이날 평양비행장과 수도의 거리들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 특기할 4.8북남합의서에 따라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상봉과 회담은 7.4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데서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는 력사적인 계기로, 민족주체적노력으로 통일성업을 기어이 이룩해 나갈 겨레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

람홍색공화국기가 세차게 펄럭이고 있는 비행장에는 동포애의 정과 통일의 열기를 안고 달려 나온 각계층 수도시민들이 운집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비행장에서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위대한 민족대단결의 경륜으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겨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몸 가까이 뵙게 된 군중들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드넓은 비행장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윤혁서기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기타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남측대표단을 태운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리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군중들은 꽃다발을 흔들면서 남측대표단을 환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였다.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통일부 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 장관 리헌재,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대통령특별보좌역 림동원을 비롯한 남측대표단 수원들과 기자들이 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함께 김대중대통령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어린이들이 김대중대통령과 부인에게 꽃다발을 드리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비행장에서 김대중대통령은 서면으로 도착성명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타신 자동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시내로 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숙소까지 동행하시고 숙소에서 담화를 나누시였으며 대통령과 그 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 평양에서 진행



(평양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이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북과 남은 지난 4월 8일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과 함께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려원구의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안경호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통일부 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 장관 리헌재,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대통령특별보좌역 림동원, 기타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김영남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지금 우리의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 있는 투쟁을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필생의 위업이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분렬로 하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립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에는 뜨거운 애국열의와 통일의지, 가장 정당한 통일경륜이 집약되여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힘 써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립장과 방침들, 그 실현을 위해 나서는 몇가지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립장에 서서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성사는 자기힘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밝힌것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통일문제해결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북과 남이 대결하지 않고 하나의 민족으로 단합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 북과 남이 리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전망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짓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풀어 나갈데 대한 우리측의 제안에는 어떻게 하나 하루빨리 통일에 대한 민족의 소원을 실현시키려는 숭고한 뜻이 새겨 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김대중대통령이 발언하였다.

그는 자기들을 뜨겁게 맞이해 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와 김영남위원장 그리고 전체 평양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직접 비행장에 나오시리라는데 대하여 상상하지 못하였으며 평양시민들이 그처럼 뜨겁게 환영해 줄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이것은 남북통일의 열의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말해 줄뿐아니라 우리가 역시 하나의 민족임을 똑똑히 알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새 세기에 남북이 힘을 합치면 세계일류국가로 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다른 민족에게 뒤떨어 질것이라고 하면서 남북사이에 이미 합의한 원칙들을 함께 준수하고 실천에 옮기는 문제가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담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북남사이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였다.

회담은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평양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14일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림동옥제1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통일부 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 장관 리헌재,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대통령특별보좌역 림동원을 비롯한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축배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성업을 이룩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이번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낳은 빛나는 결실로 된다.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었다.

북남수뇌들은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올해 8.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1돐을 맞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한없는 감사와 흠모의 한마음을 안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이 글을 드립니다.

겨레와 인류를 끝없이 격동시킨 지난해 6월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것은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사변이였습니다.

민족사적 대경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 **김정일**장군 만세! 를 목매여 부르던 감격과 환희는 지금도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민중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차넘치고 있습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습니다.

20세기에 시작된 민족분렬의 고통이 21세기로 이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조국을 안겨주실 결심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기가 교체되는 지난해 정초에 천년만화하는 눈보라를 헤치시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으실 애국애족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대용단을 내리시였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분단 50여년의 긴긴세월에도 이룩하지 못한 조국통일의 과제들을 단신으로 2박 3일이라는 력사의 한순간에 실현하시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온 겨레가 대단결하여 평화적으로 민족분렬을 끝장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주시였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채택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은 끊어 진 혈맥을 다시 잇고 대결과 불신으로 지속되어 온 이 땅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풍을 안아 온 민족통일의 이정표이며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고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새 시대의 민족선언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해 주심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수난에 찬 민족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21세기를 통일되고 강성부흥하는 위대한 **김정일**세기로 빛낼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였으며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밝은 앞길을 열어 가게 되였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 3대헌장을 6.15공동선언에 구현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이 조국통일사와 더불어 영원히 흐르게 하신 것은 력사에 길이 빛날 대공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던 시기에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담아 탄생한 남북공동선언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 비범한 령도력과 숭고한 덕망이 낳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과 똑같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뵈옵고 그 음성을 직접 듣게 된 우리의 남녘민중은 태양처럼 환하신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였고 우리 민족의 장래운명을 가꾸어주실 분은 오직 **김정일**장군님밖에 없음을 가슴깊이 간직하며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활화산처럼 터치었습니다.

애국애족의 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였기에 공동선언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온 겨레와 세인의 아낌없는 찬사와 경탄을 자아냈으며 날을 따라 높아가는 국제적인 지지찬동속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전례없는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심으로 하여 민족통일운동은 오늘 장군님의 사상으로 움직이고 장군님의 령도력으로 전진하며 장군님의 덕망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운명의 구원자, 수호자이시고 통일력사의 창조자이십니다.

한민전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은 백두의 해돋이마냥 강렬하고 눈부신 태양으로 온 남녘땅을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남녘의 각계각층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한없는 자긍심에 넘쳐 장군님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장군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을 실현할 충성의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그 길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고 참된 삶의 길이며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기에 남녘민중 모두는 통일조국의 영광찬란한 내일을 낙관하며 용기백배 자신감 드높이 6.15공동선언관철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조국통일도 민족부흥도 문제없다는 확신을 깊이 새기고 한민전과 통일운동대오를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불패의 대오로 튼튼히 다지며 장군님에 대한 각계민중의 숭배열풍이 이 땅을 뒤덮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영구분렬책동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21세기 첫해인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여는 뜻 깊은 해로 빛나게 장식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7천만겨레를 현명하게 령도하시기에 조국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21세기는 민족통일의 세기, 통일강성대국의 세기로 찬연히 빛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과 행복은 조국통일과 주체위업완성의 결정적 담보이며 우리 겨레와 인류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각층의 애국민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21세기 태양이시고 민족의 구세주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원히 젊음에 넘쳐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6월 15일
서울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호소문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동포형제자매들!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안고 희망찬 21세기 첫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 뜻깊은 새 세기의 출발점에서 우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평양에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 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우리는 대회에서 올해에 조국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중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7천만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나라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랑찬 전환의 해이다.

온 민족이 21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여 나가자.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온 민족이 6.15북남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기치로 높이 들고 더욱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은 북남공동선언의 가장 귀중한 정신이다.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투철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해 나가자.

서로 오가고 서로 만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신뢰와 단합을 도모하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자본가, 종교인 등 해내외의 각계 각층 동포들은 소속과 처지의 차이를 뛰여 넘어 서로 연대하고 자주와 대단결, 애국애족의 대오에 합류하자.

북남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의 서로 다른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된다.

연방제를 하루빨리 실현하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 주며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는 지체시키지 말아야 한다.

송환되지 못한 비전향장기수들을 돌려보내고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생사와 안부도 전해 주며 중단된 적십자회담도 빨리 열자.

공영, 공리의 원칙에서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은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북과 남사이에 이미 합의된 협력과 교류의 시간표들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

7천만 해내외동포들!

우리가 내딛는 새 세기의 첫 자욱에 민족의 미래가 비껴 있다.

올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비결은 북남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주춤거리지 말아야 하며 그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말아야 한다.

온 겨레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는 참다운 주인이 되자.

모두다 21세기의 첫해인 올해 2001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로 정하고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거족적 통일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 나가자.

우리는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이 되는 올해 6월 15일부터 8.15광복절까지를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켜 나가며 21세기의 첫 광복절을 전 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할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북남공동선언이 밝힌 이정표를 따라 나아가는 길에 민족자주도 있고 민족대단결도 있으며 조국의 통일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시대와 역사의 부름앞에 애국애족의 열정을 바쳐 나서야 할 때이다.

모두다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오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주체90(2001)년 1월 10일

평 양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준공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평양의 관문인 통일거리 입구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웅장화려하고 특색 있게 건립되였다.

이 탑은 치마저고리차림의 두 녀인이 옷자락을 날리며 마주 달려 와 조선지도가 새겨 진 3대헌장 마크를 높이 받들어 올리는 민족적색채가 넘치는 독특한 형상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 따라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려는 7천만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탑신의 높이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상징하여 30메터, 너비는 6.15공동선언을 상징하여 6.15메터로 되여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념탑준공식이 14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인 김영남, 홍성남,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중린, 김용순, 곽범기, 김윤혁 그리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오익제부위원장,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비전향장기수들,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무관단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김영남위원장은 준공사에서 반세기이상에 걸친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뜨거운 지향과 념원을 담아 일떠세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한 세계적인 대걸작이며 **김정일**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또하나의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건립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 탑이 건립되게 된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아 올리신 또하나의 빛나는 업적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를 더 잘 받들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영남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 져도 조국통일3대헌장을 조국통일의 근본지침으로 확고히 틀어 쥐고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기어이 열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기념탑앞에 드리운 붉은 천을 끊었다.

참가자들은 기념탑과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 명제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탑과 명제비를 돌아 보았다.

≪대축전행사≫광복56돌 통일연대 기념식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광복 56돌 통일연대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념식에는 오전부터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15,0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임방규(통일광장)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금 이 순간 서울과 평양에서 ≪2001 민족통일대축전≫이 남북공동행사로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광복의 정신, 민족자주의 정신이며 통일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역설하고, ≪56년전 조국해방을 이루었던 그 기세로 2000년대 통일의 길을 열어 갑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승환(9기 한총련) 의장은 ≪이제 우리의 과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구심점으로 사상과 정견, 단체의 이익을 떠나 통일운동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맞아 전국각지에서 온 국민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승환의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라면 누구라도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와 국보법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뉴욕에서 있었던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을 참관하고 돌아온 조현기(양민학살경남대책위) 위원장은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 위원회가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또한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50년 맺힌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함께 참가한 전국각지의 6.25양민학살 유족 10여명은 ≪50년 맺힌 한을 통일로 풀어다오≫를 외치며 남북이 사는 것은 조건없이 통일하는 길 뿐이라는 데 공감했다.

기념식은 홍순석(한국청년단체)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고, 참석자들은 오후 3시 ≪2001 민족통일대축전≫ 광복56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한강둔치 금성무대로 이동했다.

통일뉴스 2001-08-15
조성현 기자(shcho@tongilnews.com)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



평양방송에 따르면 21세기를 맞이하여 7천만 겨레의 드높은 통일열망으로 3천리조국강토가 끓어번지고 있는 가운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이 15일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개막식장은 이번 축전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억센 기상을 떨치는 통일대축전으로 빛내이며 통일조국을 하루빨리 안아 오려는 각계 대표들의 드높은 통일열의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었다.

개막식장상공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조선은 하나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개막식장에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철저히 실현하자!≫,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 남, 해외의 3자연대를 강화하자!≫, ≪전민족적인 애국애족운동으로 삼천리강토위에 통일강성대국을 일떠 세우자!≫ 등의 구호판들과 조국통일주제의 대형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통일기들과 단체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대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유미영위원장 등 이북의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책임간부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각계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이 참가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리랑≫노래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여성들이 흰색바탕에 우리 나라 지도가 그려진 대형 통일깃발을 들고 입장했다.

≪통일아 통일아≫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통일깃발이 서서히 게양되었다.

순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만세!≫, ≪통일된 조선민족 만세!≫의 구호소리가 터져 오르고 수천개의 고무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 올랐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원회 김영대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했다.

이어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재로부의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부위원장이 연설했다.

개막식에서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축하하여 여러 정당, 단체, 각계인사들이 많은 축전을 보내어 온데 관해 통보되었다.

이어 축전대표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주변에 기념식수를 했다.

개막식에서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경축하는 평양시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성공리에 폐막

평양방송에 따르면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염원과 커다란 관심 속에 평양에서 개막되었던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지난 8월 16일 성과리에 폐막되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폐막식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진행됐다.

폐막식장 상공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이룩하자!≫, ≪조선은 하나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폐막식장에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철저히 실현하자!≫,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 남, 해외의 3자연대를 강화하자!≫ 등의 구호판들과 조국통일주제의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폐막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을 비롯한 이북의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꾼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했다.

폐막식에는 또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각계대표들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했다.

폐막식에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염순길위원장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표단 양은식단장의 연설들이 있었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폐막이 선언되자 ≪민족대단결가≫가 주악되는 가운데 대형통일깃발이 내리워졌다.

7천만 겨레의 절절한 통일염원과 애국애족의 열의 속에 성대히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주체적인 자주통일노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활력을 힘있게 확증하고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대단결을 이룩해 가는 주체적 통일역량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민족자력으로 통일성업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인 사변으로서 성스러운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북, 남, 해외 공동보도문



새 세기의 첫 광복절을 맞으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과 각계인사들 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

남측과 해외측 대표단은 8월 21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측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경제인, 문화인 등 각계층과 상봉 및 련대모임을 가지고 여러 곳을 참관하였으며 공동행사들도 진행하였다.

민족의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 나라가 분렬된 후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려는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거족적인 통일행사였으며 민족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자욱을 남긴 자랑찬 민족대화합의 마당이었다.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이번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을 통해 계속 철저히 리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북과 남 해외대표들은 온 겨레의 성원과 지지속에 채택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새 세기 조국통일의 유일한 리정표요, 애국애족의 통일강령으로 재확인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6.15북남공동선언 실천에 적극 떨쳐 나서기로 하였다.

2. 북과 남, 해외 대표들은 6.15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외세의 간섭과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민간단체들이 적극 련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 해외대표들은 평양에서 진행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8.15광복절 57돐에는 평양과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며 서울행사에 북측대표단이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북과 남 해외대표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대단결을 실현하며 각계층의 련대, 련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급에서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함께 필요한 교류사업도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이번 축전기간에 단체별, 계층별 상봉과 회합에서 토의하고 협의한 문제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 해외대표들은 이번 민족통일대축전기간에 민족공동행사로 진행된 일제의 만행 및 력사외곡책동을 폭로하는 북남공동사진전시회가 성과적을 진행된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끼친 만고대죄를 폭로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한 여러가지 형식의 공동행사들을 계속하며 당면하여 독도령유권을 확고히 지켜 나가기 위한 민간급 단체들의 공동행동을 강화하며 이와 관련한 학계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주체 90(2001)년 8월 21일
평양



아쉬움을 남긴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

8월 20일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단은 평양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냈다.

오전 10시 참가단이 찾은 곳은 주체사상탑. 북이 자랑하는 대형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평양시내 어디에서 보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주체탑은 모두 70층으로 이루어졌다. 탄생 70돌을 기념하는 숫자다. 높이는 170미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탑은 모두 북에서 생산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건설에 사용된 대리석은 모두 2만 5천 5백 67개로 해설원의 설명에 의하면 ≪70돌을 맞은 김주석의 산 날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한다.

참가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평양시내는 사회주의 계획도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했다. 주체탑과 일직선 상에 놓인 인민대학습당이 눈앞에 펼쳐졌고, 대동강 줄기와 멀리 능라도 경기장, 유경호텔 등이 손에 잡힐 듯 들어왔다.

1990년 고위급회담 때 평양을 방문한 적 있는 민화협 이병웅상임의장은 ≪11년 새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외향적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북이 자랑하는 건물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다음 일정은 평양시 외곽인 강동군 대밝산 기슭에 위치한 단군릉. 평양에서 버스로 50분 남짓 걸려 도착했다. 대밝산 정상을 깎아 단군부부의 시신을 안치한 단군릉 역시 북이 자랑하는 대형 건축물 중 하나다. 1994년 7월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어 1998년 준공된 단군릉은 화강암 1994개로 만든 총 9제단의 능이다. 능입구에는 고대의 능을 상징하듯 선돌이 출입구를 지키고 주변에는 90톤의 무게를 지닌 돌범이 사방을 호위하고 4명의 아들과 8명의 문무대신을 상징하는 돌 구조물이 입구에 버티고 섰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1993년 발견된 이 무덤은 당시 전자상자성공명연대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5011년전의 무덤으로 확인됐으며, 묘안으로 들어가면 아르곤 가스로 밀폐된 유리관 위에 다시 박달나무 관으로 쌓인 단군부부가 누워있다. 원형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대밝산 일대가 석회암 지대의 중성토양으로 보존이 용이한 지질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편 민족종교관계자 등은 약식으로 단군릉 앞에서 천제를 올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내원이 말했다.

≪매년 10월 3일 우리는 천제를 지냅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가 아닙니까? 그 시조에서 분열되어 갈라진 후손들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비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북에서만 천제를 올렸는데 올해 10월 3일부터 남에서도 참여해 북과 남이 공동으로 통일 천제를 올리면 어떨까요?≫

그 설명이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날 점식식사는 통일거리에 위치한 평양 단고기집에서 이루어졌다. 유명한 평양 단고기를 시식하기 위해 늘어선 남측 참가단은 사뭇 가슴 설레는 눈치였다. 개갈비찜과 허벅다리찜, 그리고 남자들에게만 제공된 황구신, 마지막의 탕에 이르기까지 평양 단고기는 비린내 하나없이 입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었다. 북의 단고기는 당국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요리. 탕과 수육 중심의 남측과 달리 요리방법도 다양했다. 참가단은 모처럼 여유로움을 즐기며 평양에서 맞은 마지막 더위를 달랬다.

대표단은 오후에 만경대소년학생궁전을 향했다. 어린이를 하늘처럼 여기는≪어린이의 천국≫ 북이 자랑스레 내세우는 시설이다. 소년학생궁전은 일종의 학생들의 과외활동 장소다.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이곳에서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학습을 연마한다. 학생궁전 덕택에 북 청소년들의 1인 1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측 대표단이 소년학생궁전을 도착하자 소년단원 학생들이 소년단 특유의 경례를 붙인 뒤 대표단을 안내했다. 대표단은 가야금, 무용, 한국화, 태권도, 수영 등 다채롭게 진행되는 학습광경을 관람했다. 이윽고 대강당에서는 남측 대표단을 위한 소년학생궁전 단원들의 공연이 올려졌다. 독창, 중창, 독주, 합주, 무용 등 공연은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다. 연신 박수갈채를 보내는 남측 대표단에게 북의 안내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왕입니다. 모든 정책에서 우선 고려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문제입니다. 그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소년학생궁전 학생들에게는 간식과 음료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통일된 조국을 번창시킬 미래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북측 사회를 이해하는 코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라나는 새세대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에 둔다는 것이다. 그것에서 우리는 북측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의 밤은 양각도호텔에서 진행된 만찬으로 장식됐다. 오후 8시에 시작한 이날 만찬은 첫날 북이 주최한 연회에 답하는 의미에서 남측이 주최한 것이다.

만찬에서 남측을 대표해 김동완 목사가 인사말을 했다.

≪6.15 선언 실천을 위해 민간이 손잡고 나서야 합니다. 남과 북 어느 반쪽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6.15 선언 실천을 통해 평화통일을 앞당깁시다.≫

북의 답사는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했다.

≪이번에 평양에 340여 명이 방문해 호상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양의 곳곳을 참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사상, 제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단합을 실현합시다.≫

테이블마다 남과 북의 참가단들이 섞여 앉았다. 그들은 대표들의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술잔을 들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40도짜리 백두산들쭉술과 50도짜리 찹쌀술이 순식간에 동이 났다. 잔뜩 취기가 오른 참가단은 곳곳에서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부르며, ≪조국통일만세!≫를 외쳤다.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

만찬은 밤 11시가 다 돼 끝이 났지만 술자리는 숙소인 고려호텔로 돌아와서도 이어졌다. 호텔 맥주집마다 가득 들어찬 남북의 손님들은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눈치였다. 첫날부터 숱한 논란과 진통이 이어졌지만 헤어지길 아쉬워하는 그들은 새벽까지 술잔을 부딪혔다.

한편 남북공동보도문을 준비해온 남북측 실무팀은 내년 8.15 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하고 북측 대표단을 서울로 보낸다는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정을 모두 마친 남측 대표단은 21일 오전 11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12시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도착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사 추진본부의 기자회견도 공동보도문 채택 여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통일뉴스 2001-08-21
안영민기자(민족21)

≪대축전행사≫
광복56돌 통일연대 기념식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광복 56돌 통일연대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념식에는 오전부터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15,0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임방규(통일광장)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금 이 순간 서울과 평양에서 ≪2001 민족통일대축전≫이 남북공동행사로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광복의 정신, 민족자주의 정신이며 통일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역설하고, ≪56년전 조국해방을 이루었던 그 기세로 2000년대 통일의 길을 열어 갑시다!≫고 축구했다.

이어 최승환(9기 한총련)의장은 ≪이제 우리의 과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구심점으로 사상과 정견, 단체의 이익을 떠나 통일운동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맞아 전국각지에서 온 국민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승환의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라면 누구라도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와 국보법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뉴욕에서 있었던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을 참관하고 돌아온 조현기(양민학살경남대책위)위원장은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위원회가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또한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50년 맺힌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함께 참가한 전국각지의 6.25양민학살 유족 10여명은 ≪50년 맺힌 한을 통일로 풀어다오≫를 외치며 남북이 사는 것은 조건없이 통일하는 길 뿐이라는 데 공감했다.

기념식은 홍순석(한국청년단체)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고, 참석자들은 오후 3시 ≪2001 민족통일대축전≫ 광복56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한강둔치 금성무대로 이동했다.

통일뉴스 2001-08-15
조성현 기자(shcho@tongilnews.com)



민족대단결의 활로를 여시어

인터넷 ≪구국전선≫ 주체 89년 4월 11일

【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온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88회 탄생일인 태양절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 네. 위대한 주석님께서 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에서도 큰 업적의 하나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족성원들이 갖고 있는 각양각색의 이해와 요구를 전일적으로 포용하는 이념을 정립하고 민족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있을 때 비로소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민족사에서는 마침내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이 펼쳐지고 온 겨레는 대단결의 중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유】: 옳은 말씀입니다.

주석님의 한평생은 민족문제해결에 전력을 다해오신 한평생이었고 민족대단결에 헌신해오신 불멸의 한평생입니다.

【최】: 주석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대전에 나서신 첫날부터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오직 민족대단결에 있다는 것을 통찰하시고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자본가들까지 광범위한 애국역량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전민항쟁을 영도하시어 마침내는 나라를 광복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김일성**주석님에 의한 조국광복회창립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거대한 사변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김】: 광복후에도 그랬죠.

주석님께서 평양에서 하신 유명한 개선연설말입니다. 그때 주석님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광복된 새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전체 민중에게 호소하셨지요.

【최】: 네. 참으로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이 집대성돼 있는 유명한 연설이었죠.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대단결의 이 슬로건은 바로 8.15광복전에 그분께서 작성제시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지요.

【유】: 네. 그러고보면 1948년 4월에 열렸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도 주석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죠. 그때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해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이 서로 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석님의 넓은 도량과 그분의 민족대단결사상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했습니까.

【김】: 옳은 말씀입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90년대 초 온 겨레의 통일염원을 반영하여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놓고도 그분께서 민족대단결을 위해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오셨는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주석님께서 평생을 조국광복과 새조국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영도해오시는 과정에 빛나게 구현해오신 민족대단결의 경륜이 집대성된 통일대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 저는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 생명력의 견지에서 볼 때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맞먹는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민족해방실현을 위한 강령이라면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완전한 민족해방실현을 위한 강령으로서 다같이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강령인 것입니다.

【김】: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민족대단결의 기초와 원칙, 방도와 슬로건들을 제시하시고 위대한 광폭정치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신 통일의 구성이시고 어버이이시었습니다.

【유】: 주석님께서 지니신 참다운 민족대단결사상에 감복하여 이 땅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에 나섰는데요. 그들중에는 지어 지난날 한국군에 복무했던 군장성들을 비롯해 반공을 하던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 이 땅의 진보단체들은 물론 정계와 재계, 사회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민중들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뭉치고 있습니다.

【김】: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이 있어 오늘 통일의 주체적 역량이 튼튼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민족대단결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도자님께서는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 3대기둥으로 정립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헌신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98년 4월에 발표하신 명저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놓고서도 영도자님께서 민족대단결 문제에 관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유】: 위대한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위대한 영도자님에 의해 승계되어 빛나는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최근 시기만 봐도 거족적인 통일운동단체인 범민련이 결성되고 범민족대회가 정례화되지 않았습니까. 통일애국의 주체적 역량이 전민족적 범위로 확대강화되어 분열주의세력을 압도하고 자주통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이 더욱 커집니다.

【김】: 네. 위대한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이념, 주석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민족애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어 반드시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소원성취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 방식에 관한 논의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나 : 조국통일 3대헌장에서 민족대단결과 연방제통일방식문제를 놓고도 이남의 ML론자들은 부당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민중의 올바른 인식을 흐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 그렇습니다. 이남의 ML론자들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이론을 개량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하며 연방제통일방식은 북의 사회주의 역량으로 남의 민주역량을 흡수하는 논리라고 왜곡하여 시비하고 있습니다.

나 : 먼저 민족대단결에 관한 주체적 견해와 그 정당성에 대하여 요약해보았으면 합니다.

주 : 민족대단결에 관한 사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93년 4월 6일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와 이념적 기초, 민족대단결의 가장 올바른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총적 목표는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구성원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전민족에게 복무하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설하는 것이며 범민족통일국가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특성과 민족사의 쓰라린 교훈에 기초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블록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민족대단결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를 주었습니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예속되면 민족구성원들도 망국노의 처지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민족애와 자주정신은 사상과 정견, 당파와 소속, 재산의 유무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민족이 단결할 수 있게 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됩니다.

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는 또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민족대단결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의 중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는 것,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 접촉과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 등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전민족대결 10대강령은 통일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통일위업을 가장 빨리 앞당길 수 있게 하는 독창적이고 정당한 정치강령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자주성에 대한 민족의 본성적 요구로 일관된 독창적인 민족대단결 강령입니다. 그것은 또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단결하여 통일운동의 주체로 결집되게 하는 가장 폭넓고 심도있는 민족단합의 대헌장입니다. 또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최근 정세발전의 요구에 부합될 뿐 아니라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 손잡고 나가기 위한 항구적인 정치연합강령입니다. 통일을 위한 투쟁의 현시점에서만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다음에도 조국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기 위한 항구적인 정치연합강령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라는 고전적 정식화를 주시고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라는 정식화를 주시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체제,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고 강조하시었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의 대단결에 있습니다. 주체적 통일역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는 것입니다.

나 :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은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구성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진보적 인사들도 그 독창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의 구성원인 이남의 ML론자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시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주장은 어떤 것인지요.

주 : 이남의 일부 ML론자들은 전민족대단결에 의하여 조국을 통일할 데 관한 주체적 견해를 우경적이고 개량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조국통일문제는 계급해방문제, 노동자정권수립에 관한 문제이므로 전민족대단결에 의하여 그것을 이룩한다는 것은 우경이며 개량주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좌경적 궤변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이며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전민족대단결에 관한 이념은 조국통일의 본질과 민족적 성격에 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민족구성원의 각이한 요구와 지향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복종시킬 데 대한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의 이념에는 남과 북, 해외에 사는 각계각층 민족구성원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이며 사활적인 요구와 이익이 반영되어 있



습니다.

민족대단결의 이념은 주체세력과 사대매국세력, 통일세력과 분열세력, 민주역량과 파쑈역량과의 치열한 민족적, 계급적 대립과 투쟁을 전재로 하고 있는 이념입니다.

전민족대단결이 실현되면 사실상 조국통일위업이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의 이론을 우경으로, 개량주의로 몰아붙이는 주장은 계급투쟁결정론적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대하는 좌경적 견해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의 형성과 공고발전을 가로막으며 각계민중을 전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결집시킬 수 없게 하는 반통일적 망발이며 사실상 이남변혁운동도 올바르게 할 수 없게 하는 기회주의적 궤변입니다.

나 :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이남의 ML론자들의 궤변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연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에 대하여 요약해보았으면 합니다.

주 : 그렇게 합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과 북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통일국가의 전모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데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연방국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자주이념을 가장 철저히 구현한 연방제민족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고연방국창립방안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국창설방안입니다.

고연방국창립방안은 또한 체제나 이념보다 민족의 통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민족적 자주성의 실현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이며 고연방국이 자주적인 민족연방국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뚜렷이 내세우는 연방국입니다.

고연방국창립방안은 나라의 국호를 정하는 데서도 역사적 사실과 민족적 감정,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라는 이름을 살리고 남과 북의 민족, 민중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경치이념인 민주주의 이념을 살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국가가 자주적인 민족국가임을 성격적으로 특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연방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블록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연방국의 존재방식과 특성규정은 기성의 중립국이나 기성의 중립화이론에 구애됨이 없이 완전히 독창적인 민족주체적인 중립화규정입니다.

고연방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지침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밝혀진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통일방식입니다.

그리고 고연방국이 시행하여야 할 시정방침으로 제시된 고연방국의 시정방침은 우리 나라의 전영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남과 북의 온 민족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전략적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연방국의 10대시정방침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단일민족의 자율형 연방중립국의 독창적인 현장으로서 자주적인 정치, 민주주의와 민족대단결의 도모, 북남의 경제합작과 교류,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근로민중의 생활안정과 복리의 계통적 증진, 민족연합군의 조직과 외래침략으로부터의 민족보위,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정과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과 북, 해외동포들은 물론 온 지구촌이 고연방국창립방안을 적극 지지찬동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ML론자들의 고연방국창립방안을 부정하는 이른바 근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 그들은 통일국가창립방식문제를 계급모순순환론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남과 북의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 수 없으며 이남에서 사회변혁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 혁명을 하여야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남에서의 사회변혁이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에까지 이루어져야 이북의 사회주의체제와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남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기 전에 연방제방식은 북의 사회주의 역량으로 남의 민주역량을 흡수하는 논리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있어서 사상과 체제가 다른 조건에서는 통일을 할 수 없다는 통일 불가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본질과 현실적 가능성, 그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조건적으로 외면하는 궤변이며 반동적 집권세력이 떠벌리는 적화통일논리를 근거지어 주고 그들의 두개 국가논리를 긍정하는 궤변이며 통일주체세력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시키는 극히 유해로운 반통일론입니다.

연방제방식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입니다.

3대원칙에 기초하여 제시된 연방제방식은 하나의 민족통일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체제, 두 정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연방제통일방식은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애국애족의 통일방안이며 민족대단결의 힘에 의하여 통일할 수 있게 하는 민족주체적 통일방도이며 우리 조국의 분단실상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창조적인 통일국가수립방식입니다.

연방제방식에 의한 자주적, 평화적,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적화통일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강토, 하나의 통일국가를 창출하기 위하여 두개 정부, 두개 체제를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국가 수립방식입니다.



3대헌장은 통일의 기둥

남혁 / 인터넷 ≪구국전선≫ 주체 89년 4월 11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해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유일무이한 기둥이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으로 규정해주시고 전민족을 그 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신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주체61(1972)년 7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북에 간 남측대표를 접견해주시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명하셨다.

서울대 김모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곧 망국의 길이라는 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 겨레가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피의 교훈이다. 정말 **김일성**주석님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명철한 통일원칙을 제시하셨다. 그대로만 하면 조국통일은 문제없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주체82(1993)년에 발표된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기업인 김동식씨는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에 조성된 동족대결구도가 우리 겨레에게 어떤 불행과 고통을 주고 있고, 또 어떤 불이익과 참화를 불러오며 미국과 일본에 어떤 어부지리를 주고 있는가를 누구나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재앙을 가시자면 우리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명실공히 민족대단합의 총서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사상과 이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로 하여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우려와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는 명안이 들어 있다.≫

춘천에 살고 있는 강석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기초하여 이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단합의 기초로 삼고 있고 사상과 이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모두가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하는 민족대단결의 준칙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주체69(1980)년에 발표된 이 방안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통일방도이다.

대구에 사는 언론인 김문봉씨는 이렇게 말했다. ≪집권자들이 ≪국가연합≫이요, ≪연방제≫요 하면서 역설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연방제통일방안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어느 한쪽의 우위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연방제통일방식 외에 더 실현가능하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군사평론가 차영민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주석께서 명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민족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극동아시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가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 된다면 누구에게나 다 좋을 것이다. 나는 우리 나라가 반드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한민전 평양대표부를 방문한 방글라데시민족사회주의당 하사눌 하크 이누와서기장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면서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방안은 전적으로 정당한 방안이다. 나는 앞으로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통일방안이 세계 광범위한 사람들 속에 더 많이 알려져 그에 대한 지지, 연대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리라고 믿는다.≫

참으로 **김일성**주석님께서 명시해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유산이다.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의 특출한 공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통일의 근본열쇠 - 조국통일 3대헌장

(평양 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발표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은올해에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근본열쇠가 조국통일 3대헌장을 철저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3대헌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것으로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뿐만아니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3대헌장에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들어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1(1972)년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측대표와 하신 담화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이 원칙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의 력사적인 7.4공동성명에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내외에 엄숙히 선포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실천적방도를 비롯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온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1980)은 통일국가의 전면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설계도이다.

련방제형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조국통일 3대헌장이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통일강령인것으로 하여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지난해에 한자리에 모여 평양에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세울것을 발기하였다. 지금 기념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통일전선탑과 함께 빛나는 이름들

인터넷 구국전선 주체 90년 4월 21일자 / 채수항

자주민족의 시조이시고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에 의해 민족대단결사상이 창시되고 민족적 단합의 참다운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세기적 변혁의 언덕을 넘으면서 여러 번 세대가 바뀌었지만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스런 위업에 몸바친 사람들의 이름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 인생의 출발점과 걸어온 길은 서로 달라도 민족자주위업에 바쳐진 넋을 값높이 여기고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는 위대한 품이 있기 때문이다.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반공의 편견에서 벗어나 연공애국, 통일애국에의 인생전환으로 민족사에 애국의 흔적을 남긴 지사들의 이름이 세대와 세대, 세기와 세기로 이어지며 빛나는 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한없이 넓은 포용력, 고결한 의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민족대단결을 기리는 통일전선탑에 반공으로부터 연공애국의 길로 인생전환을 한 통일애국열사들의 이름도 새겨넣으시어 민족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도록 해주신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전선탑은 평양의 만경대 맞은편 대동강 한가운데에 떠있는 두루섬과 나란히 있는 쑥섬에 건립되었다.

쑥섬은 주체37(1948)년 5월2일 경애하는 주석님의 지도밑에 4월남북연석회에 참석했던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를 가졌던 유서깊은 사적지이다.

쑥섬에 통일전선탑을 건립할 구상과 발기를 하신 것은 **김일성**주석님이시었다. 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통일전선탑을 시대의 기념비로 훌륭하게 건립하시었다.

통일전선탑에 대한 몇가지 자료

· 1990년 8월10일 조국광복 45돌을 맞으며 제막함

·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남북의 정당, 단체들의 수를 상징하여 56개의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은 높이 13.5m의 석탑임

· 탑은 기단과 비문판, 탑신으로 이루어져 있음

· 탑신 앞면에는 주석님께서 친히 쓰신 ≪통일전선탑≫이라는 다섯글자가 금빛으로 부각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정당, 단체들의 명칭이 새겨져 있음

· 비문판의 앞면에는 4월남북연석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신 경애하는 주석님의 교시와 존함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쑥섬협의회에 참석했던 대표들의 이름과 직무가 새겨져 있음

여러 경로를 거쳐 방북의 길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는 통일전선탑을 참관한 사람들이 많다. 해외교포들도 평양에 가면 으레 쑥섬사적지를 찾고 통일전선탑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춘다고 한다.

그때마다 특별히 그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김구, 김규식, 홍명희, 백남운, 이극로, 조소앙, 조완구, 엄항섭, 최동오, 정진석을 비롯한 이남출신의 통일애국인사들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통일전선탑은 민족의 대단결로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주석님과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해 솟아난 역사의 기념비이고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통일성업에 공헌한 애국적 인사들에 대한 의리가 얼마나 깊으신가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증언자라 하겠다.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빛나는 태양의 그 모습
오늘도 마음속에 계십니다

외세에 짓밟혀
한가닥의 빛조차 그리운
어두운 남녘의 가슴가슴에
환하신 미소를 보내주십니다



멀고도 고난에 찬 해방의 길에
어렵고 힘겨워 주춤할때면
위대한 태양의 그 이름
신심과 용맹을 안겨줍니다

자주, 통일, 애국의 길에서
눈앞에 깃발로 나부끼며
6.15선언 관철에 불러주시며
손잡아 이끄시는 우리 어버이

필승으로 새기는 주체의 뜻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새겨
장군님따라 그 뜻으로 꽃피울
통일삼천리에 천만년 빛나옵니다

아-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영원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6월 15일

김영호

1년 12달 중 6월은 가운데 달
한달 30일 중 15일은 가운데 날
평양선언, 남북공동선언 발표된 그날은 목요일
목요일은 한주의 꼭 가운데 요일

신묘함이여
허리잘린 내나라 남과 북의 그 세월 잇고져
해와 달 한복판에 자리잡았나
6월 15일

천기를 타고나신 **김정일**장군님
무심한 날에조차 생명을 주시어
역사앞에 날 중의 날로 내세운다네
통일시간표를 짜주신다네



마침내 통일조국의 이정표 받아안고
온 민족이 울고 웃으며
위인칭송의 서사시를 엮은 날이여
만국의 민중 박수를 보낸 날이여

내 오늘 들었네, 믿었네, 경탄했네
세계의 안테나들이 날리는 말
세계의 중심에 우리 장군님계신다
6월 15일 **김정일**충격에
지구가 흔들렸네